



코로나19 이전 대면 수업 모습

(사진=대학주보DB)

하이브리드형 수업 다음 학기에도 유지 평가 방식에는 우려도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강나윤 기자 nadori814@khu.ac.kr

5월 1일, 강의실 거리두기와 밀집도 기준이 해제되면서 각 대학별로 캠퍼스 재개방이 한창이다. 우리학교 역시 대면과 비대면 강의를 혼용해서 다음 학기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균태 총장은 지난 2월 외부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사회 전반의 인프라가 비대면 중심으로 재편된 만큼 더 이상 전면 대면 수업에 집착할 필요가 없다”며 대면과 비대면 수업을 융합한 ‘하이브리드형 수업’ 방식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보인 바 있다.

우리학교는 다음 학기에도 비대면 강의를 일정 비율 유지해 학사 운영을 이어간다. 이는 비대면 강의의 가능성을 파악한 학교 측 견해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의 선거 공약이 합쳐진 결과이다. 학사지원팀은 “수업 방식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변경하는 것은 유동적으로 적용 가능한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운영 방침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검토될 예정으로 교육부 지침, 타학교 사례, 내부 회의 등을 통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대면과 비대면을 혼용해 학기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대면·비대면 강의 비율에 따라 성적 평가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강의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학기 동안 우리학교는 교육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적용했다. 학사지원팀은 성적 평가 관련 향후 계획에 대해 “학사지원팀의 소관이 맞으나,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학점 표준화 제도, 상위기관 지침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한 후 다뤄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 “당장 다음 학기는 절대평가나 상대평가 중 하나로 단일화해 적용될 것이나 이후 계획에 관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학과별로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비율이 맞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비대면을 중심으로 진행했던 학기 중에도 무용학부 등 여러 학과에서 실습이 불가피해 대면 수업을 일부 진행해왔다. 이러한 점을 감안했을 때, 대면 여부에 따라 성적 평가방식이 달라진다면 학과 간 비대면 강의 비율 차이가 학과 전체

평균 성적의 차이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이다.

온라인을 매개로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 특성상 제한된 의사소통과 기술적 결함도 문제로 지적됐다. 김성일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쓴 <20·21학번 대학생의 온라인 비대면 수업 인식조사를 통해 본 수업 설계 개선 연구>에 따르면, 20, 21학번 학생들은 온라인 비대면 수업의 불만족 요인 1순위로 ‘집중력·이해도 저하’를 뽑았다. 더불어 ‘과제·공지 사항 제시 미흡’, ‘시스템 오류’, ‘교수와 학생·학생 간 소통 부족’ 등을 문제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에 관해 김 교수는 “온라인 비대면 수업이 갖는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며 “관리·감독하는 사람 없이 자율성에 기초한 대학 환경이 낯설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배승현(호텔경영학 2019) 씨는 이번 학기에 대면 수업 과목과 비대면 수업 과목을 모두 수강하고 있다. 다음 학기에 병행될 두 개의 수업

방식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배 씨는 “수업 방식 각각의 장단점을 느끼고 있다”며 “학생들이 각자 원하는 수업 방식의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변화하는 것은 자율성을 존중해주는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라고 말했다. 다만 배 씨는 “비대면 수업은 절대평가, 대면 수업은 상대평가라는 인식이 강한데 다음 학기도 이와 같은 기준이라면 아무래도 형평성 문제가 생길 것 같다”고 염려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성찰과 표현’ 수업을 대면으로 수강한 경험이 있는 김연우(미디어학 2021) 씨는 “소통이나 현장감, 집중도는 대면 강의가, 통학 시간의 차원에서는 비대면 강의가 이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대면, 비대면 수업을 함께 수강하게 되면 통학하는 학생들은 통학 여건이 복잡해지고 비대면 강의를 수강할 장소를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도 김 씨는 “비대면 수업은 녹화 강의 비율을 높이거나 실시간

강의를 하더라도 녹화된 내용을 시청하면 출석을 인정하는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대책이 마련되면 대면, 비대면 혼용 시 불편함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비대면 강의 유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총학은 특정 강의만이 아닌 비대면 수업 진행이 가능한 대부분의 강의에서 비대면 운영을 자율화하는 방향으로 학사지원팀과 논의 중이다. 예를 들어 하나의 강의가 총 16주차로 구성된다고 가정했을 때, 일정 비율에 맞게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성적평가 방식에 대해서는 상대평가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총학과 학사지원팀 간 합의가 이뤄진 상태다. 서울캠 총학 봉건우(자율전공학 2017) 회장은 “우리학교가 타 학교에 비해 학점 부여 방식이 엄격한 점을 고려해 완화된 상대평가를 교무처에 요구했다”며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만큼 총학생회가 끊임 없이 학교본부와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교 차원에서도 인프라 구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희섭 행·재정부총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학사지원팀의 요청에 따라 단과대학별로 오픈 스페이스(Open Space) 등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비대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학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대면 강의의 경우 지정된 강의실에서 수업에 참여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비대면 강의는 학교에서 별도로 강의실을 제공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정경대, 이과대 등의 단과대학은 별도의 열람실 또는 비대면 강의 청취를 위한 전용 강의실을 개방 중이다.

다가올 변화에 대해 많은 논의와 안건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김성일 교수는 “앞으로 온라인 비대면 수업은 교수자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 온라인 상황에 맞는 수업 설계를 통해 ‘정상 수업’의 새로운 질료로 활용돼야 한다”며 예외가 아닌 ‘정상 수업’의 일부로서의 비대면 강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봉 회장 또한 “비대면 수업의 공존은 많은 변화와 함께 학내 여러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시기에 축적된 비대면 강의 관련 인프라와 경험 등으로 더욱 높은 질의 강의 제공이 가능해지고 학내 공간과 강의실 부족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캠퍼스 정경대에 오픈 스페이스가 조성돼 있다.

(사진=대학주보DB)